



4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체적 방법

*George Muller 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단순한 믿음의 기도로 2000 명의 고아를 키운 독일 태생 영국인임. 19 세기중엽 영국에서 활동 이 내용은 그 사람의 간증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George Muller 간증록에서)

1.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먼저 구한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할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어려움의 십중팔구는 해결이 된다. 참으로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마태복음 26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 : 42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비록 그것이 육성에서 발원한 것일지라도-),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이 다를 때 자신의 소원을 고집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을 말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비록 그것이 육성에서 발원한 것일지라도-),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에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이다.

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와 주님의 뜻과의 갈등이 나온다(행 16:6-10). 그렇지만 밤에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후, 그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뜻에 굴복하여 즉각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만을 나의 삶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이렇게 한 후 나는 그 결과를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에 맡기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연관지어 성령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에 따라 하시지 결코 성경에 배치되게 인도하지 않는다. 성령과 말씀은 연합되어야 한다.

로마서 10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3. 그 다음 단계로 나는 환경과 여건을 참작한다. 가끔 이러한 여건은 말씀과 성령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암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계획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자신의 온 지각을 사용하여,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큰 재산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되며(잠 24:3)” 라고 했듯이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긍정적 부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열왕기상 18 : 42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 가서 땅에 꿰어 엮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열왕기상 18 : 43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 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18 : 44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바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 :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라디아서 1 : 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 :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5.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과 그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나의 최대한의 능력과 지식을 쫓아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세번 간구 후에도 계속 평안하다면 나는 그에
따라 계속 행동으로 옮긴다.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계약 등에 이르기 까지 이
방법이 효과적임을 경험하여 왔다.

빌립보서 4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5. 성령님이 인도하신 방법에 대한 구체적 예
우리 이것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eg. GEORGE MULLER 의 경우)

다음 내용은 GEORGE MULLER 가 고아원을 확장하기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을
조명하셨는가를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700 명의 고아들이 거할 고아원과 필요 경비를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
주심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분이라고 더욱 더 증명되어야
하겠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이다.

즉 주님의 영광이 이 고아원 확장의 가장 주된 요인이므로 만약 고아원 확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포기하리라---- 1851, 1, 2.

이주일에는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씩 새고아원을 위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해 왔다. 지난 주에도 늘 하던대로 잠언을 읽었는데 다음의 말씀이 내마음을 벅차게 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모든 일, 특히 고아원 확장 문제에 있어 주님을 인정해 왔다. 그러므로 고아원을 확장시켜야 되는지 않하는지 그길을 인도해주시리라고 위로에 찬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 읽으면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나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잠 11:3) 는 잠언의 말씀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직히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확장만해도 나의 정직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바로 지도해 주시리라!

더 읽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 16:3) 내 일을 주님께 맡긴다. 그러므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질줄 기대한다. 내 마음은 더 잠잠하고 조용해지면서 주님께서 이 고아 사역에 나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낮추시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물러 선생은 700 명의 고아들을 수용할수 있는 새 고아원을 확장 설립하는 여덟 가지의 긍정 부정적인 이유를 열거했다. 다음은 긍정적 부분의 여덟번째 이유이다.

“전에도 꼭 확장 시켜야 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역 확장에 대해서 나는 영적으로 평온하며 행복하다. 특별히 이 점이 추진하려는 개인적인 이유를 뒷받침한다. 지난 8 주 동안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심사 숙고하며 기도해 왔는데, 이 사역의 확장 계획에 있어서 내 마음은 영적으로 평온하며 행복할 것이다. 내 마음의 정확한 진단과 이 결정에 실수나 미혹되는 점이 없도록 매일 기도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것들로 이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셨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명확한 견지에서 볼 때 고아원 확장을 위한 여덟가지 이유야 말로 이 가난하고 가장 부족한 종이 더 열심히 이 사역으로 그 분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런 하나님의 뜻을 결론지어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1850년 12월 5일부터 내 심정을 적기 시작한후 1851년 5월 24일 오늘까지 92명의 고아들이 입원을 신청했다 이 확장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신청자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V. 믿음과 약속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신 순종의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손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정말 안들어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염려가 들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으니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소원을 던져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로 인하여 성령님의 증계로 말씀의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사고력을 사용하여 깊이 상황을 관찰하십시오.

한번이 아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점점 확신이 자라 갑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확신이 점점 자라갈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은

“자기가 원하는 것, ‘고 것!’ ‘고 것’ 을 해 줄것인지 안해 주실 것인지 응답을 받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안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특별 인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 것’ 을 해라 마라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믿음과 약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롬 4:20-21)

진정한 믿음은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추측이나 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의 기초로 삼지 않고 미지의 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일 이 건물에서 뛰어 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진지하게 믿으며 높은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동하여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막연한 희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rhema)입니다.

로마서 10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VI. 응답의 조건 :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4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예정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한 후 우리에게 발생한 나쁜일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좋은 일에만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쁜 일에는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이상 우리에게 생긴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이 뜻을 나타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이며,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상호 반응과 작용으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1.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의 관계

1. 하나님의 때

rhema 를 받고 난후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한참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태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 세에 약속은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 세가 되어서였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의 예언도 즉시로 예언이 성취된 것도 많이 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섭리속에서 성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었지만 성취된 것은 4000 년 후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믿음을 믿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르게도 늦지도 않게 꼭 맞는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2. 기다림

시편 37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피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브라함은 75 세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응답은 25 년 후에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육적인 요소가 기다리는 가운데 다 부서집니다. 조바심하는 마음이 깨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육적인 많은 요소가 거룩하게 순화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해보면, ‘이 사람의 고난이 거의 끝나 가는구나,’ 혹은 ‘아직 많이 고생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여러 모양>

어떤 사람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무도 자신의 고난은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져 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저를 더 이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 놓지 마세요” 한 답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주님이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주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가운데 자신의 옛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고난 육성을 정화시키는 풀무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기질이 처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다림의 고통은 그 사람의 기질에서 옵니다. 아무리 조바심하며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새벽은 빨리 오지도, 더 늦게오지도 않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찾아 오는 것이요, 믿음으로 보면 깊은 밤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가운데 순종을 배운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갈 때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시는, 낮추시는 것임을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5 :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 :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다림 가운데 고난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엄습해 오는 고난의 파도 가운데 이 고난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옵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시 42:1-5)

사람의 생애중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에 경청하므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해 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꾸 자꾸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자꾸자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고 말합니다.

< remember, praise, thanksgiving >

또 중요한 것은 remember, praise, thanksgiving 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의 성가대를 세 파트로 나누어 각각 remember, praise, thanksgiving 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복하여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회상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벅찬 믿음이 솟아 오릅니다. 지난 날과 같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솟아 납니다.

VII.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 2 :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재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할 때, 그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름부어 주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불순종하거나 범죄하면 이 기름부어 주심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과 관계가 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